



인터뷰 | 민 경 선 경기도 고양특례시 시장

“항공우주·의료·K-컬처 산업 육성 기업·인재 모이는 특례시 만들 것”



고양특례시 전경



민선 9기 취임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고 고양의 산업 지형을 다시 그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민경선 고양시장.

‘열린 고양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는 한편 항공우주와 의료·바이오 그리고 K-컬처에 AI를 접목해 고양을 일자리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족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을 ‘좋은 일자리’에 두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민경선 시장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열린 고양 프로젝트’ 민선9기 1호 결재
시민 소통 강화… 실제 행정·정책 반영
좋은 일자리 통해 자족도시 전환 구상**

**-취임 후 ‘열린 고양 프로젝트’를 비롯해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과 성과는?**

“민선9기 1호 결재로 ‘열린 고양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본격화했다. ‘고양고양이’가 공식 SNS 누적 조회수 260만 회를 넘기며 큰 호응을 얻었고 시장 직통 문자폰에도 8월까지 4천34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생활 불편부터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다.

시정회의도 보고 중심에서 토론 중심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대학과 병원에 이어 산하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으며 시장실 이전과 온라인 타운홀 미팅도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의 횟수가 아니라 시민 의견이 실제 행정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은?**

“고양시는 오랜 기간 베드타운에 머물렀다. 자족도시로 전환하려면 도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일자리를 갖추어야 한다. 항

공우주와 의료·바이오 그리고 K-컬처에 AI를 접목하고 대학과 병원 등 지역의 역량을 연결하는 ‘일자리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과거 투자 의향을 보였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다시 확인해 산업 기반이 실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항공우주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
시했다. 구체적인 발전 전략은?**

“고양시는 한국항공대학교라는 전문 인력과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고 UAM 실증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되고 있다. 이를 단순한 교육·연구 자산에 그치지 않고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겠다. 7월 항공대와 ‘항공우주 산학융합 거점도시 비전선포식’을 열고 협력을 공식화한 것도 같은 이유다.

2027년 준공 예정인 ‘K-UAM 수도권 실증센터’와 수도권 최초 UAM 종합 실증 버티포트 그리고 항공대 활주로와 고양드론윙센터를 활용해 인재 양성에서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정부와 공공기관·군·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해 고양의 항공우주 경쟁력을 높이겠다.”

**-의료·바이오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이유와 전략은?**

“고양시는 대형 병원과 의료 인프라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제는 이를 단순한 의료 서비스 기반에 머물게 하지 않고 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대학 그리고 기업을 연결해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가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데이터센터와 동국대 BMC의 연구·임상·창업 역량은 중요한 기반이다. 관내 주요 병원과 대학의 역량도 하나로 연결해 국제사업 유치와 기업 성장을 지원

하겠다. 여기에 AI 바이오와 ‘AI 글로벌 허브’를 결합하면 고양의 의료·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K-컬처를 정상화하고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은?**

“가장 먼저 K-컬처밸리를 정상화해 아레나를 포함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대형 공연과 문화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기반을 만들겠다. 교통망 확충만으로는 지역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 GTX 등 접근성이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고양에 와서 머물고 소비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BTS RM과 고양시의 인연을 비롯해 리센느와 ‘고양고양이’ 등 지역의 문화자산도 적극 활용하겠다. 대형 공연과 음식·관광을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특화 분야를 활용한 의료 관광까지 결합하면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공연과 전시·축제·관광이 이어지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주력 산업에 AI 접목… 경쟁력 강화
‘고양고양이’ 등 문화자산 적극 활용
“목표는 일자리 제대로 쟁긴 시장”**

**-‘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 전략과 기대
효과는?**

“AI는 항공우주와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확장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자율비행과 UAM부터 AI 진단과 신약 개발까지 산업 간 융합 가능성이 크다. ‘유엔 글로벌 AI 허브’ 역시 단순히 국제기구 시설 하나를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산업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8월 유치 선언식을 시작으로 추진단과 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와 국제기구 유치 포럼도 준비하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와 AI·데이터센터 그리고 의료·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해 AI 정책을 실제 도시에서 검증하는 ‘글로벌 AI 실증도시’로 발전시키겠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한다면 기업의 국제 공동 R&D와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임기 동안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와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우리 동네에도 좋은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다. 출퇴근 30분 단축을 약속했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들이 굳이 멀리까지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

일자리 숫자보다 청년과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 첨단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오고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으면 지역 인재가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양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다. 4년 안에 모든 산업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기업 하나에서 시작해 좋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 ‘민경선 시장이 일자리만큼은 제대로 쟁겼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metro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약력

제12대 민선9기 경기도 고양특례시 시장(現)
경기교통공사 사장
3선 경기도의원 (8, 9, 10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책특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정책자문위원
이재명 경기지사인수위 교통대책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민경선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7월 1일 시청 집무실에서 민선9기 1호 결재를 하고 있다.



민경선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달 18일 고양은평선 화수역 신설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민경선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5일 ‘2026년 제4회 고양특례시장기 아름다운 동행 걷기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양특례시